



제1기 달빛문화과정 »
‘우리시대의 인문학’

한 잔의 차 - 진주 차풍과 차인들 이야기

죽향문화연구원 김 형 점





한 잔의 차 - 행동 철학이요 인문학이다

- 진주 차풍과 차인들 이야기 -

김 형 점



죽향문화연구원

1. 들어가면서

인류는 처음 약용으로 발견한 차잎에 ‘해독과 각성’이라는 특이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기호음료이면서 정신수양의 음료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유구한 음차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와 중국에서는 차를 ‘알가(闍伽, Argha)’라 불렀는데, 이는 ‘생명수’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일상에서 ‘차 한 잔 마시는 일’을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삶의 근원을 찾는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에 차나무를 재배하고 정성을 다해 차를 만들고 마시는 일련의 다사(茶事)는 지역마다 다르게 형성되어 나라마다 특색 있는 차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AD 48년 가야시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삼국시대에 기반을 잡았습니다. 차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적

의례로 차를 대하면서 외형적 규범을 중시해서 화려했고, 유교를 받아들인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심신수양의 일환으로 음차를 즐겼습니다. 다만했던 조선 역사 속에서도 차와 관련된 많은 유적·유물·예법·세시풍습 등이 선구적 다인들이 남긴 많은 시문과 함께 우리 차 문화의 빛나는 편린들이 되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진주(강우) 차풍의 굳건한 뿌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진주 차풍은 조선 초기 영남 사림의 중조이신 점필재 김종직의 충정과 애민의 마음이 깃든 ‘차밭’이라는 시 한 수와 남명 조식의 실천적 선비정신에 부합하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독립운동, 교육사업, 전통 차 문화 복원운동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교육과 전통 차 문화 부흥을 위해 헌신한 아인 박종한 선생의 삶 속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 문화 발원지로서 그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진주 차풍의 담론을 통해 현대 문명에 짓눌린 우리 일상을 관조하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생활의 여백’을 만들어 활기찬 삶 되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엮어 내고자 합니다.

2. 본론

1) 진주 차풍(강우 차풍)의 정의

강우 지역

강우(江右)는 임금이 남으로 볼 때, 낙동강의 오른쪽 영남지방, 즉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경남(고려 성종 때 진주목에 해당하는 지역) 일대를 말합니다. 영남은 소백산맥 중의 죽령(竹嶺, 689m)과 조령(鳥嶺, 1,071m) 등 큰 재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생긴 이름으로, 지금의 경상도지역을 말합니다. 강우지역은 고대국가인 가야로 부터, 1,000여년의 사적을 유지한 신라와 고려, 조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차의 생산지로 한국의 차 문화를 계승해 온 중심지였습니다.

진주 차풍

강우지역에서 차와 관련된 자연환경, 역사, 차인들의 활동, 그리고 차 도구 등이 어우러진 차 생활 풍습 전반을 일컫는 말입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한 기운은 백두대간을 달려 그 끄트머리에 지리산을 솟게 하더니, 남서쪽 따뜻한 곳에서는 차를 길러 차 이야기를 만들고, 낙남정맥을 내어 김해까지 뻗어 강우지역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남강, 섬진강은 바로 지리산의 맑은 정기의 흐름입니다. 남강 물은 강우지역을 휘감아 돌고 돌아 남해 바다에 안깁니다. 강우지역의 자연 조형은 지리산과 남해바다 사이의 조화로움입니다. 강우지역은 이렇게 산과 강 그리고 삶터가 함께 어우러져 거대하고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으로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2) 진주 차풍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범위

지리산 : 차의 시배지 화개동

홍덕왕 3년(828),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대렴(大廉)공이 차의 종자를 가져와 어명으로 지리산 화개동에 심게 되니 이로써 지리산 화개 고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 생산지이자 차 문화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다술사 : 지증왕 4년(503)에 세운 사찰

다술사는 일제 강점기 때 효당을 중심으로 항일운동 지도자들의 은거지가 되어 국권 회복을 꾀하던 곳이기도 하면서, 현대 한국 차 문화 부흥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지리산 화개 및 산청 등지에서는 양질의 야생차가 생산 되었고, 이 지역의 큰 고을인 진주에서 자연스레 사람들이 차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차인들은 ‘이차국풍(以茶國風) 이차양생(以茶養生) - 차로써 나라의 풍습을 세우고, 차로써 몸을 건강하게 지켜 내자’를 기치로 전국 최초로 연합 차회를 만들고, 매년 5월 25일을 ‘차 마시는 날’로 제정하여 차와 함께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운동을 펼친 곳이 진주입니다.

3) 진주 차풍의 계보 및 정신

①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 1431~1492 : 세종 13~성종 23)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김일손, 이목, 허반, 권오복, 권경유, 정여창, 김굉필, 이종순의

제자로 이어지는 사림파의 중조입니다.

1471년(성종 2), 경상남도 함양군수로 부임한 점필재는 차(茶)가 생산되지도 않으면서 차세(茶稅)를 내야하는 함양 백성들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는 관영 차밭을 마련해 주어 차세 대신 차를 납부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 바칠 차가 이 고을에서는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백성들에게는 차세가 부과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라에 바칠 차를 전라도의 여러 곳에서 사려고 쌀 한 말을 주고 차 한 흡을 얻었다.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하였을 때 이러한 폐단을 알고 백성들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고 관가에서 스스로 구하여 대신 납부하였다.

차밭(茶園)

좋은 차 받들어 임금님 장수 빌고자 하나
오래도록 듣지 못하던 신라의 유종을
이제 두류산 기슭에서 얻었으니
우리 백성 한 가지 고통 덜어 또한 기쁘다.
대밭 옆 거친 동산 수십 평 언덕에
자주색 아름다운 새 부리 얼마나 자랑스운가
다만 백성의 괴로움 덜고자 함이기에
광주리에 좁쌀을 담지 않아도 되리

이 글은 조선 초 영남 사림의 종장(宗匠)이면서 이 지역 차 문화 정신의 한 축을 마련한 점필재의 절절한 애민(愛民)사상을 느끼게 합니다. 점필재는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함양 고을의 엄천사 북쪽 대밭을 관영 차밭으로 만들어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도 차를 마시며 차에 관한 시문도 남긴 차인이기도 했습니다. 점필재의 학통을 이어받은 조위, 이목, 남효은, 정희량, 유효인, 김흔 등도 모두 차를 애음하고 차 글을 남긴 차인들입니다.

②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2, 연산군 7~선조 5)

난세에 출사하지 않고 처사로 일관하면서 학문과 수양에 전념한 조선 중기의 학자입니다. 반궁체험(反窮體驗)을 중시하여 실천 없는 공허한 지식을 배격하였으며, 의리 정신을 투철히 하여 비리를 용납하지 않으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선비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문하 선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경상우도’의 특징적인 학풍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진주, 합천 등지에 우거하면서 유학을 진흥시키고, 임진왜란 중에는 의병활동에 적극 나서서 국난의 위기를 이겨내려는 확고한 선비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③ 효당 최범술(1904 ~ 1979)

효당은 1904년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최종호(崔鍾浩)와 어머니 광산 김씨 사이에서 4남 3녀의 넷째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영환(英煥), 당호는 금봉(錦峰)이었고 효당은 그의 법호입니다.

효당 스님은 다술사 ‘죽로지실’에서 문사들과 차를 나누며 차 생활을 체계화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원효 사상을 밝히며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술사는 항일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현대 차 문화의 발원지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효당 스님이 주축이 되어 진주 차인회가 전국 최초로 결성되었고, 이는 곧 한국 차인회의 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문에 ‘청춘은 아름다워’라는 회고 칼럼을 연재하며 차 생활을 소개하고, ‘한국의 차도’(1973)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은 당시 차 생활에 관한 어떤 담론도 없었던 시기에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차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자에서 효당은 인간과 예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밝히고, 초의선사의 〈동다송〉, 육우의 〈다경〉, 송 휘종의 〈대관다론〉 등의 차의 고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 정신을 정리하면서, 일상생활은 - 각성의 생활, 짜임새 있고 간이 맞는 생활 - 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맛을 자세히 음미하면 쓰고, 떼고, 시고, 짜고, 단맛이 어우러진 맛입니다. 이 맛을 차의 오미라 하며 인생의 맛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모든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하듯, 스님께서는 특히 간이 맞는 차 한 잔을 강조하셨고, 개인의 삶도 음식의 간을 맞추듯이 일상에서 중정(中正)을 잃지 않게 생활하는 것이 참 멋이라고 했습니다. 차 생활을 통해 일상에서 중정의 도를 발견하여 치우침이 없는 태도와 사고를 견지하라고 했습니다. 도(道)는 생활 속에 있으며, 온전한 생활은 바로 중정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 효당의 다도관(茶道觀)

첫째, 참된 차 생활은 범절이 분명한 데서 시작되고, 일상생활에는 절목(節目)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범절(凡節)을 중시했습니다. 범절은 다시 객관적 범절과 주관적인 범절로 나누었는데, 객관적인 범절이란 우리의 언행이 예의와 교양을 갖추며, 의식주 생활에서도 검박청정한 품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관적인 범절은 인격을 갖춘 개개인이 우주와 인생의 총체적 체성을 갖추어 참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감을 뜻합니다. 이러한 안팎의 범절을 갖추게 하는 데는 차 생활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된다고 효당은 강조했습니다.

둘째, 일찍이 공자께서 덕망을 두루 갖춘 군자를 일러 ‘군자불기(君子不器)’라 했는데, 효당은 동백과에 속하는 차나무의 어린 차 잎을 따서 만든 차를 음식의 ‘불기(不器)’로 여겨, 차 생활에서 비롯된 ‘차례’를 우리 한민족 문화사의 대표적 품목이라 했습니다.

셋째, 사람을 두고 짜니 싱겁니 시건방지니 등의 표현으로 사람의 품격을 맛으로 논할 수 있음을 비유하여, 중정(中正) 즉, 간이 맞는 차의 음미를 통해 도야된 인격의 제고를 피력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 차 생활이 인격고양과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산이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하고 차를 모르는 민족은 쇠망한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들어, 차 생활은 결코 사치놀음이나 현실도피가 아니라 진중한 차 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행복한 현실생활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효당은 ‘다도무문(茶道無門)’에 입각한 ‘다도용심(茶道用心)’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다도무문’이란 말을 그대로 새기면 다도에는 들어갈 문(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이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으며 이쪽저쪽 아무 곳이나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어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도에 들락날락할 문이 없다는 ‘무문(無門)’은 본질 그 자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도무문’이란 차 생활 그 자체가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 남녀노소, 신분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어느 누구든 문 없는 문을 통해 다도에 입문해서 ‘다도용심’을 잘하여 자신과 우주가 하나임을 깨닫고, 그 깨달은 힘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자는 것이며 나아가 함께 얹혀 사는 이 세상을 너, 나없이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 살림살이의 궁극의 본지인 것입니다.

다섯째, 총체적 인생살이를 차 살림살이로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천만사가 봄눈처럼 허무해도, 어떠한 장애나 난관이 있어도 결단코 물러설 수 없음은 ‘지은보은(知恩報恩)’하려는 ‘법희선열(法喜禪悅)’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기쁨으로 차를 마셔 진리의 생활에 계합하면 온전한 차 생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④ 아인 박종한(1925~2012)

교육자, 도예가로 효당 스님을 모시고 진주 차풍을 일으킴

- ‘반진단(般震團)’ 결성과 항일운동

1943년 8월,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을 예측한 박종한, 최소해, 김대성, 서병도 등 8명은 민족독립을 이루기 위해 ‘반진단’이라는 항일 투쟁단체를 결성하여 폭탄을 제조하고 독립선언문을 기초하다가 일본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 대아중 · 고등학교 설립과 인재육성

해방 이후 단원들은 ‘나라에 가장 시급한 일이 곧 인재육성’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1953년 4월 8일, ‘반진구국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아 진주에서 대아중 · 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33년간 교장을 역임하면서 오민교육 창시, 다도교육, 창렬사 참배, 충무공 탄신기념 행군 등 특색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해서 경남의 인재 육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학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차(茶)의 날’ 제정 - 1981년 5월 25일

차인들과 함께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하고, 선언문을 직접 지어 축석루에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 남명제(南冥祭) 창설과 진주 정신으로의 승화

남명(南冥) 조식(曹植) 선생의 경의(敬義)정신이 경남사학의 염원이라는 인식 아래, 남명 선생의 학문과 뜻을 기리는 남명제 창설을 계획하고, 1977년 8월 9일 ‘제1회 남명제’를 지냈으며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진주문화 선양(宣揚)

진주의 문화재를 발굴하여 대아고등학교 내에 '오민박물관'을 만들어 학생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 순회 전시회를 기획하여 천 년의 속내를 키워 온 진주문화를 선양했습니다.

- 향토전승 도예 개척

'아인도방(亞人陶房)'을 만들어 진주의 도예 문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 민족정기 선양(宣揚)

청학동에 민족제단과 민족혼 탑을 건립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했습니다.

- 한국 차 문화 부흥

진주의 비봉루(飛鳳樓)와 한국 차인회 발기의 산실이 된 하천다숙(荷泉茶塾)에서 진주와 전국의 차인들에게 '오성다도(五性茶道)'를 지도하며 민족정신을 차풍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⑤ 진주 차인회

- 진주차례회란 이름으로 1969년 전국 최초의 차회 모임 결성

1981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제정 선포— 올해(2015년)로 34주년 기념행사 주최
진주차례회는 음차 문화를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진주 사람들이 만들어 활동한 차인회로서 고문에 효당 최범술스님을 모시고, 회장은 김창문, 회원으로는 아인 박종한, 김재생, 문호근, 최재호, 강명찬, 최규진 등의 활동으로, 현재 40여명의 회원들이 진주 차풍의 역사를 지켜 나가고 있는 종가차회입니다.

1970년 4월 1일 일본 나고야 오모테센계의 요시다 다카후미 부부와 차 문화 교류를 가졌습니다. 1977년 1월 15일 진주차례회를 진주차도회로 개칭 — 1979년 진주 차인회로 개명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진주 차례회 - 진주 차풍의 형성 - 한국차인연합회 창립 - 전국적 차 문화 운동으로 확산

- 지역별 차 문화 단체 발족

- 진주 축석루 : 1981년 5월 25일 '차의 날' 선포 장소 및 행사장소

- 지리산 화개동 : 대림공 차 시배지, 대림공 기념비

⑥ 진주연합차인회

진주차인회가 중심이 되고 진주서 활동하고 있는 18개 단위 차회가 연합하여 차회 활동을 하면서 진주 차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 맺는말

차 마심은 겉으로 갖추어야할 법도와 절차 그리고 속으로 채워야할 정신이 요구되는 문화 행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천년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왕의 명을 받아 처음 차를 계획적으로 심은 곳이 이곳 지리산 자락이요, 오늘도 차나무를 기르며 연구하고 차 마시는 도구를 준비하고 차 서적을 펴내고 차 생활 문화 운동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는 곳도 바로 이곳 진주입니다.

지금까지 강우 차풍의 형성 과정과 범위, 정신적 계보를 통해 현대 차 문화의 발원지로서 역사적 당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서울이 중심인데 반해, 차 문화만큼은 진주가 발원지이며 중심입니다.

지리산의 정기 머금은 좋은 차와 함께, 유구한 음차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서 신선하게 차생활과 인연지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이야기를 맺습니다.

일상에서 마시는 한 잔의 차는 인문학의 시작입니다!

참/고/문/헌

- 김명배, 「다도학」 학문사 1998년
최범술, 「韓國의茶道學」 서울: 보련각 1973년
박종한, 「茶道」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79년
박종한, 「五民敎育」 서울: 배영사 1975
이홍식, 「국어대사전」 일증당 1978년
김명배, 「한국의 다시감상」 대광문화사 1988년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南冥集」 서울: 이론과 실천 1995년
박선정, 「점필재 김종직 연구」 고대 대학원 1984년
한충희, 「점필재 김종직의 생애와 정치」 교육 활동, 계명한문학회
이진수, 「한국 근현대 차인물 연구」 (사)국제차문화교류재단 2012년
정헌식, 「진주시민과 차생활」 형평출판사 2001년